

현장을 찾아서·(株)미원 영등포공장

미래지향적 경영, 앞서가는 환경관리

■ 편집부

이달의 현장으로 연합회 사무실과는 지척에 있는 (株)미원 영등포공장을 찾게 된 것은 등잔밑이 어둡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곳은 사내 환경관리활동이 활발한 모범환경업체이며, 환경관리인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제3회 환경관리장에서 동장을 수상한 바 있는 임인섭환경관리인이 근무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이었다.

만5천평의 대지위에 자리한 본사는 지난 '58년에 창립된 이래 조미료의 대명사처럼 되어있는 '미원'을 생산하다가 '71년 방학동공장신설을 계기로 종합가축사료와 락카·잉크·도료·화장품원료인 니트로셀룰로오스, 주형·FRP원료인 불

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비롯해 전자재원료인 S/B MC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금년엔 '사랑과 신뢰'를 기본으로 본사의 경영이념이기도한 '미래지향'에 역점을 두고, 신제품개발과 기술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질·대기 각 2종 규모인 본사는 환경관리과가 설치된 '89년도에 사내 환경관리규정을 제정했다. 무허가배출(방지)시설을 방지하고 경영영향을 정

차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이 규정은 모든 환경오염배출·방지시설의 신·증설, 변경, 보수에 있어서는 계획단계부터 완료까지 환경관리과를 경유·확인 후 종결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생산과의 대리를 위원으로 하는 환경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 매월 1회씩 회의를 소집해 환경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내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환경관리인과 각과의 대리들로 구성된 환경안전점검위원회에서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각 생산공정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환경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체크, 즉시 조치하기도.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관리위원회와 함께 이들 위원회의 운영으로 철저한 환경관리를 하고있다. 특히 박병규본부장은 아침 일찍 폐수처리장으로 출근해 현장을 둘러보는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할 정도. 따라서 환경관련업무엔 걸림돌이 없다고 한다.

◆ 대기 관리 data(보일러 설비)

(단위 : p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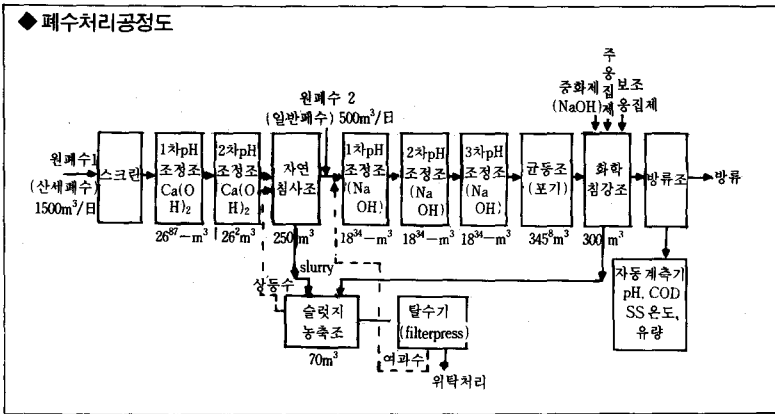
항목	당사기준	배출허용기준
SOX	620	850
NOX	70	250
분진	90	150
Smoke	1°	2°이하

◆수질관리 측정 분석 data

(단위 : mg/ℓ)

구분 항목	원폐수 수질		처리수 수질	당사자체 관리기준	배출허용기준
	산폐수	일반폐수			
PH	1 ⁵ ~3 ³	4 ⁴ ~6 ⁶	6 ⁸ ~7 ⁵	6 ⁸ ~7 ⁵	5 ⁸ ~8 ⁵
COD	60~80	50~80	30~40	50 "	150 "
BOD	60~90	70~100	40~50	70 "	150 "
S S	30~50	60~100	8~12	20 "	150 "
N-h	5~10	10~20	3~8	10 "	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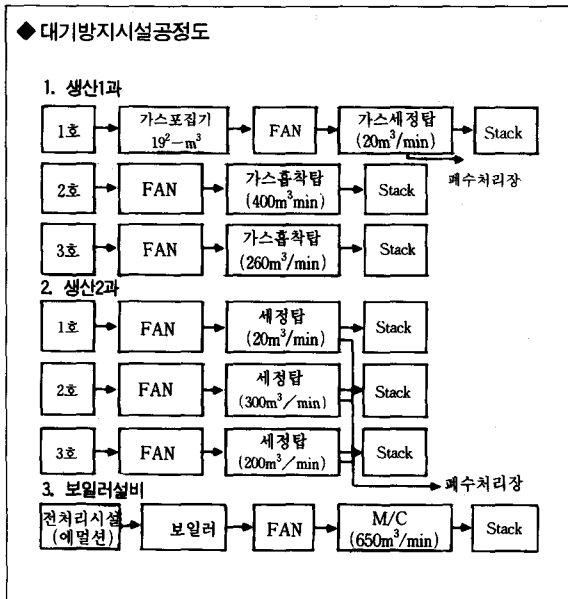
◆ 폐수처리공정도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키기도 했다.

15년여동안 이곳 현장에서 환경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임인섭 환경관리인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사내·외 산적한 환경문제를 해결, 그 공적을 인정받아 환경관리장 동장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이다.

◆ 대기방지사설공정도



▲ 관리부의 임인섭·장지철·류희준 환경관리장·임인섭 유산규 환경관리인. 왼쪽은 파장규 근무장

주로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표에서 보듯이 배출허용기준을 훨씬 밑도는 수질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유기물질의 경우 물리화학적처리 방식으론 다소 효율이 떨어지지만, 생산현장에 협조를 유도, 작업표준에 의한 정상적인 작업을 통해 근원적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감소시켜 적정처리하고 있다.

폐수처리비로는 지난해 약품비 1억2천만원, 슬러지처리비 1천 1백만원 등 총 2억6천만원이

소요됐다.

류희준 환경과장은 보다 완벽한 폐수처리를 위해 올해 1억5천만원을 투자, 방류조에 carbon tower를 설치할 계획이라 했다. 환경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배출시설세분화에 따라 대기방지사설설치투자비도 4억원가량이 책정됐다.

특히 본사는 위탁처리해오던 폐산을, 산분리기를 도입 설치하여 산을 재활용하므로서 폐수방지사설의 처리부하를 저감, 원감절감 측면에서도 연간 2⁵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둬 대내외

그는 액상소각보일러를 설치하여 고농도폐수를 자체처리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극소화했으며, 기계식 농축로를 설치하고 수동식탈수기를 전자동식으로 교체하여 인력의 공수절감과 효율적인 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환경오염도 저감에 많은 공헌을 했다.

“환경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참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후손에게는 푸른하늘과 맑은물을 유산으로 물려줘야합니다”